

샬롬! 주님 안에서 형제 되고 선교의 동역자 되신 여러분들에게 안부와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4

이 말씀으로 다시한번 선교와 복음 증거의 중심을 잡아 봅니다. 무덥고 힘든 여름이었는데 이제 제법 서늘한 가을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이 일본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랜기간 코로나로 인해 지치고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유익한 시간이 되길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그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기쁨과 감격은 상상을 초월 했을거라고 보지만 그들의 앞은 홍해요 광야요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감당하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주님은 그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요 훈련의 시간이었고 주님의 임재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전무후무한 광야 학교였습니다. 때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그랬듯이 특히 한국과 일본은 쫄쫄 얼어붙듯이 닫혀 있어서 자유로이 왕래는 물론 마음까지 멀어져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특히 선교의 상황은 너무 악화되어 그러지 않아도 잘 모이지 않는 일본인들이 더 모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동역자이신 여러분과 한국교회를 비롯한 저희들을 위해 협력하시는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동안 이렇게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도 한글교실과 노숙자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게 하심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유학생 초청 위로회와 웰컴 파티를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코로나로 닫혀 있던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 졌습니다.

"10월 11일부터 무비자 일본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무비자 여행' 부활 등 입국 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다." 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일본은 향한 하늘길이 닫혔고 바닷길이 닫혔었는데 모든 것이 중단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어 주신 길들을 통해 이전처럼 한국교회가 일본 향해서 같이 기도하고, 와서 같이 선교하는 이 운동이 다시 재개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 운동이 일본에서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단된 단기선교가 다시한번 불일 듯 일어나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 , 한국교회가 다시한번 뜨거운 복음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역사하소서
- , 꺼져가기 직전의 일본 선교가 다시 복음의 불이 붙어 일어나며 이 일에 한국교회와 성도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소서
- , 자녀들이 선교의 대를 이어 주께 충성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 , 부족한 저와 아내 이은정선교사의 건강을 위해,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어진 사명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 , 후쿠오카 국제교회와 저희들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조금도 어렵지 않도록 채워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셨듯이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후쿠오카에서 황석천, 이은정, 준수 인영 후쿠오카국제교회가 보내드립니다.

선교 동참 후원 계좌 국민 420825-94-100573 황석천